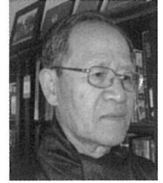


12지 이야기(9)

원숭이 - 모성애의 상징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수필가
cg18509@comcast.net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동물과 식물로 크게 나뉜다. 동물계는 아메바나 짙신벌레처럼 단 하나의 세포로 된 원생동물부터 등뼈를 가진 척추동물까지 모두 12개의 문명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척추동물문에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들어간다. 그 중 젖먹이동물이라고도 부르는 포유류는 보통 7개의 목등뼈와 털로 덮인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대뇌가 잘 발달한 고등동물이다.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두뇌를 가진 동물이 영장목이

다. 나무 위에서 살거나 걸어다니기에 알맞은 몸에 손톱과 발톱이 평평하고, 주로 낮에 활동한다. 삼림지대에서 살면서 곤충, 열매, 작은 새, 나무껍질 등을 먹는 잡식성이다. 사람까지 포함되는 영장류는 기본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섯 개씩 가지고 있어서 물체를 쥐 수 있다. 현존하는 영장목은 200여 종에 달한다.

포유강 영장목에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이 원숭이다. 사람 다음으로 고등동물인 원숭이는 대뇌는 물론 색깔 시각 청각이 발달되어 있고, 지능이 높은 것도 많다.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는 사람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원숭이 중에서 따로 떼어 유인원이라고 부른다.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원숭이가 우리 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466년이였다. 일본에서 조선조 세조에게 애완동물로 바쳤던 것이다.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사는 원숭이는 외부 요인의 작용이나 유전자의 변화 때문에 모양이며 지능에 매우 큰 변이를 보인다. 코가 위로 휜 들창코원숭이가 있는가 하면, 긴 코를 의지대로 움직이는 긴코원숭이도 있다. 흔적만 남은 꼬리를 가진 바바리원숭이가 있는가 하면, 몸길이보다 긴 꼬리로 나무를 감고 매달리는 꼬리감기원숭이도 있다.

원숭이는 뛰어난 재주꾼이다. 공중제비를 비롯하여 자유자재한 몸놀림으로 상상하기 힘든 장난을 친다. 동작이 매우 빠르고 날래며, 사람의 흉내를 잘 낸다. 일본에는 원숭이를 훈련시키는 학교가 있다. 인도에서는 다른 원숭이나 야생동물들이 공공장소를 제멋대로 드나들면서 장난치는 것을 막는데, 훈련된 하누만원숭이를 이용한다. 고무마를 물에 씻어 먹는 것을 보고 바로 배우는가 하면, 트랙터 운전을 배워 좌

우회전 같은 간단한 운전기술을 익히기도 한다. 일본의 북해도에서는 겨울철에 원숭이가 온천욕을 즐긴다. 잔지바르 섬에서 나뭇잎이나 열매를 먹고 사는 칼러버스원숭이는 먹이와 함께 몸으로 들어가는 독소를 제거하려고 산불 난 곳에서 숯을 주워 먹는다.

지능이 높은 녀석들도 많아 능력의 한계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1964년 초, 스웨덴에서 열린 미술전시회에 무명의 프랑스 화가 피에레 브라소의 그림이 내걸렸다. 그의 그림은 붓놀림이 힘차며, 발레댄서의 몸놀림처럼 섬세하고 정확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오로지 한 비평가만 원숭이가 그린 그림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가 옳았다. 동물원에 있던 네 살 난 침팬지 피터가 그린 그림이 가명으로 출품되었던 것이다.

세계사를 바꾼 20인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찰스 다윈은 인간을 원숭이로 바꿔버린 사람이라고도 불린다. 동물적 유산을 물려받은 인간의 마음에는 마치 원숭이처럼 목적도 없고 번덕스러운 특성이 있다. 십여 년 전 과학자들은 인체의 유전적 설계도를 완성했다. 침팬지가 가지고 있는 게놈의 99 퍼센트가 인간의 게놈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침팬지도 가족과 미래를 지키려고 애쓴다는 연구 결과를 스위스 연구팀이 최근에 발표했다. 가족을 보호하는 독특한 '경찰조직'을 운영하는데, 이동할 때면 우두머리와 바로 아래 서열의 침팬지가 앞장서고, 맨 뒤에 안전을 책임지는 침팬지가 뒤따른다. 소리나 동작 또는 표정으로 의사를 소통하는 침팬지들은 간단한 도구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진화한 유인원과 멸종 위기 인류의 한 판 대결을 다룬 영화 '혹성탈출'에서도 원숭이들이 집이나 가족, 그리고 미래를 소중한 가치로 내세운다.

원숭이띠의 사람은 사회적이고 이지적이며 독창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낙천적이며 자신감이 있고 단호한 면도 보인다. 객관적이고 재미 있으며 풍자적이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재빠르고 다재다능하다. 반면 튀는 걸 좋아하고 과장된 말투와

행동으로 흔히 오해를 받는다. 심한 장난끼에 허영에 들뜨기 쉬운 성격, 교활하고 비열하다는 말도 듣는다는데, 영리한데다가 재주가 많은 원숭이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받는 평 아닐까? 하지만 재주만 민다가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다. 중개인, 사업가, 작가, 외교관 등에 알맞는 성격이다.

원숭이는 새끼를 꼼꼼하게 보살피고, 새끼 또한 효성이 지극하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연적 청자원형모자상(靑磁形母子像)은 어미와 새끼 사이의 극진한 정을 담고있다. 비록 우리의 토종동물은 아니지만 세시풍속 혼인풍속 장례풍속 민간의학 조형예술 등에서 수호신이나 길상의 표지로 나타나고는 한다. 제주의 돌하르방이나 전남지방의 석장승은 원숭이의 얼굴을 본뜬 것으로 간주된다. 왕궁이나 사찰 등의 용마루나 추녀에 벽사의 기원을 담아 그 모형을 배치했다. 원숭이는 귀신이나 질병을 물리치는 신통력을 지닌 것으로 알았으며, 부귀다산의 상징이기도 했다.

새해 처음 맞는 신일은 원숭이날이다. 우리 조상들은 재수가 없는 날이니 그 날은 특히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믿었다. 사람을 너무 많이 닮은 모습에 흉내까지 내기 때문에 재수없는 동물이라 기피하기도 해서 생긴 풍습일 것이다. 그 날에는 쉬고 놀았으며, 칼질을 하면 손을 벤다는 속설도 전해진다. 제주도에는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가 쉬이 썩는다고 해서 자르지 않는 풍습도 있었다.

원숭이는 옛이야기나 민속에 등장하여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깨우쳐준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아무리 잘하는 일이라도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음을 경계하는 말이다. 『서유기』의 손오공은 우리와 아주 친숙한 존재다. 중국 고대의 우화집 『열자』에 나오는 원숭이 이야기 조삼모사(朝三暮四)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농락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

